

현안과 과제

-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목 차

■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추이	2
3.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4. 시사점	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 제 연 구 실 장 (2072-6235, juwon@hri.co.kr)
: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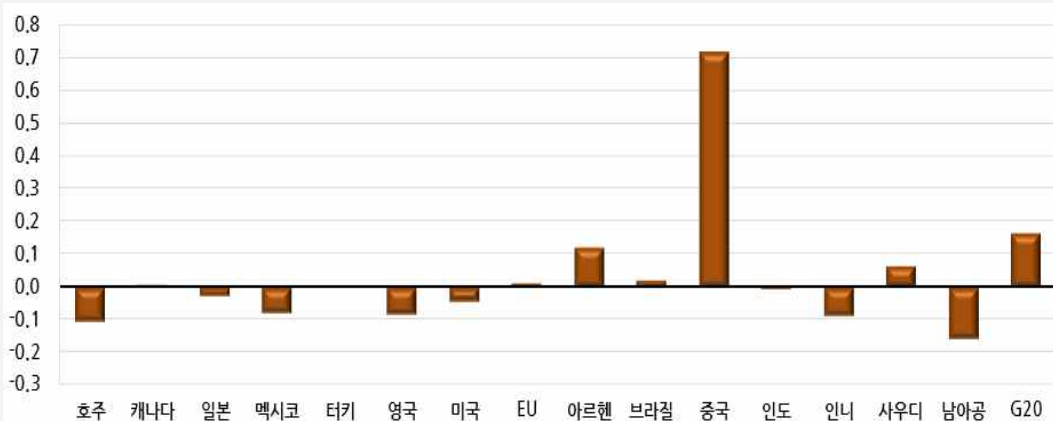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 요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 동조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으로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면, 중국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정(正,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부분 G20 국가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상관계수 분석은 두 변수의 연관성과 방향성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분기 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한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 관계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의 급변이 한국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임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만약 중국 경제의 부침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가정을 한다면 그 주된 경로는 수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 G20 경제성장률(t-1 분기)와 한국의 경제성장률(t분기) 간 상관계수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주: 1) OECD 국가별 분기 계절조정 전기비 경제성장률(2011년 1분기 ~ 2023년 1분기)을 이용하여 계산함
 2)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이며,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역(逆, -)의 관계 +1에 가까울수록 정(正, +)의 관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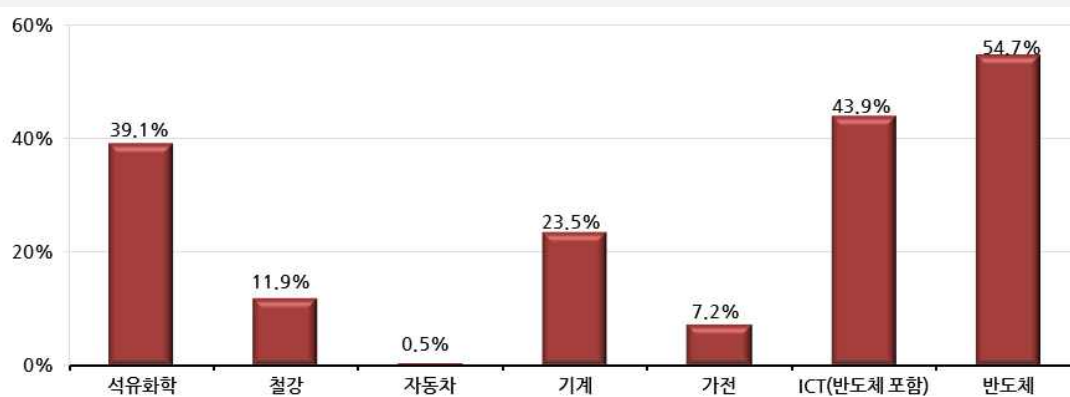
■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추이

(중국의 수입 시장 현황)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 비중은 2023년 1~7월 현재 6.2%로 2022년 연간의 7.4%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2022년 중국의 총수입 규모는 2조 7,155억 달러이며 대 한국 수입 규모는 2,002억 달러로 대만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1~7월)에 들어 중국 시장 내 5대 수입국 중 대 한국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24.7%)하면서, 한국의 순위는 5위로 추락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의존도)은 19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ICT(반도체)의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한국의 2023년 1~7월 대 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여전히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전인 200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까지 크게 떨어졌다. 2010년~2020년까지 우리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특히 2023년에 들어 급감하는 모습이다. 참고로 2023년 1~7월 현재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0%로 대 중국 비중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력 산업인 ICT 및 반도체 산업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 시장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 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주요 수출 산업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에서 자동차(0.5%), 가전(7.2%), 철강(1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23.5%), 석유화학(39.1%) 등은 여전히 중국 수요에 의존하는 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특히, 우리 ICT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43.9%이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54.7%에 달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진다.

<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대 중국 수출의존도 (2022년 기준, 홍콩 포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석유화학(MTI 21), 철강(MTI 61), 자동차(MTI 741), 기계(MTI 71~73), 가전(MTI 82), ICT 및 반도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자료 기준.

■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국민계정, 환율 등의 통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의 전제로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과 원/달러 환율 수준이 연간 지속되고, 자료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023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2023년 연간 대 중국 수출(상품 및 서비스) 감소액을 추정해 보면 명목 기준으로 369.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감소 규모가 우리나라 명목 GDP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2019년 0.674)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31.0조 원에 달한다. 이를 2015년 기준 실질 가치로 환산할 경우 실질 대 중국 수출 감소분은 24.3조 원이다.

이에 따른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Delta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대 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실질 GDP 감소 규모는 24.3조 원이며, 이는 2022년 실질 GDP 규모인 1,968.8조 원의 1.2%의 비중이다. 따라서 올해 소비, 투자, 중국 이외의 수출 등 다른 부문이 2022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대 중국 수출 감소로 2023년 중 1.2%p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7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Delta 25.9\%$)은 200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며, 올해 들어 전체 수출 침체의 약 46%가 대 중국 수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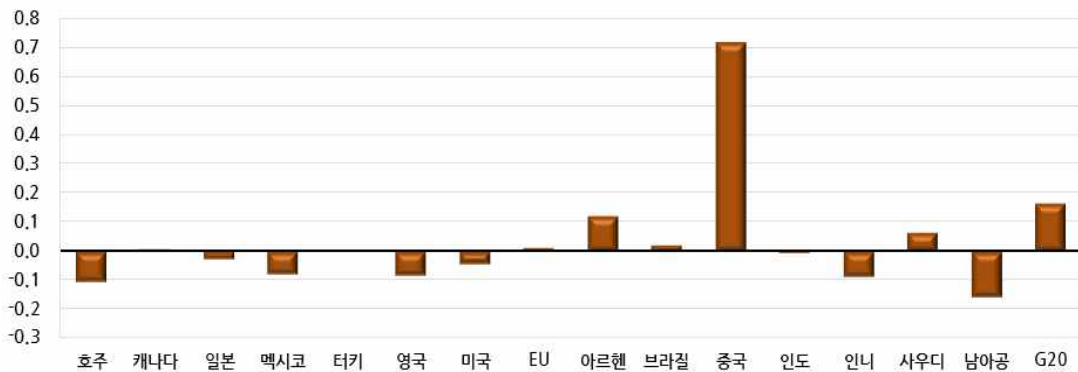
■ 시사점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감에 대응하여 첫째,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1. 개요

-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 동조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다른 G20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1분기 전 경제성장률이 당해 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기 동조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단순한 시차상관계수¹⁾ 분석으로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면, 중국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정(正,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대부분 G20 국가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다만 상관관계수 분석은 두 변수의 연관성과 방향성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분기 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한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 관계로 해석될 수는 없음
- 중국 시장이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의 급변이 한국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로 판단
 - 이에 최근 중국 경제 부침의 영향이 대중 수출로 나타나는 현황을 살펴보고, 대 중국 수출감소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함

< G20 경제성장률(t-1 분기)와 한국의 경제성장률(t분기) 간 상관관계수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OECD 국가별 분기 계절조정 전기비 경제성장률(2011년 1분기 ~ 2023년 1분기)을 이용.

1)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이며,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역(逆, -)의 관계 +1에 가까울수록 정(正, +)의 관계를 나타냄.

2.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추이

○ (중국의 수입 시장 현황)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 비중은 2023년 1~7월 현재 6.2%로 2022년 연간의 7.4%에서 크게 하락

-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 순위는 2022년 2위에서 2023년 5위로 급락
 - 2022년 중국의 총수입 규모는 2조 7,155억 달러이며 대 한국 수입 규모는 2,002억 달러로 대만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그러나 2023년(1~7월)에 들어 중국 시장 내 5대 수입국 중 대 한국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24.7%)하면서, 한국의 순위는 5위로 추락함

< 중국의 수입 시장 상위 5개국의 대 중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2019	2020	2021	2022	2023. 1~7월	
					증감률	
총수입	20,686	20,600	26,788	27,155	14,556	△7.6%
대 만	1,728(2)	2,020(1)	2,515(1)	2,402(1)	1,087(1)	△23.8%
미 국	1,223(4)	1,350(4)	1,795(4)	1,777(4)	1,000(2)	△4.5%
호 주	1,195(5)	1,149(5)	1,622(5)	1,407(5)	918(3)	10.5%
한 국	1,736(1)	1,734(3)	2,136(2)	2,002(2)	901(5)	△24.7%
일 본	1,715(3)	1,760(2)	2,062(3)	1,848(3)	912(4)	△16.6%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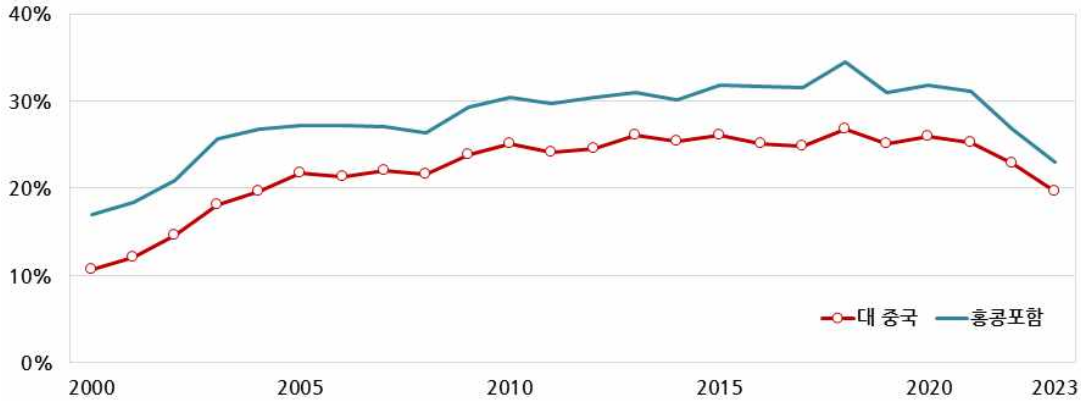
주: 중국 해관총서 통계 기준, 괄호 안은 수입 순위.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의존도)은 19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ICT(반도체)의 수출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

- 한국 2023년 1~7월 누계 대 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여전히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전인 2004년과 동일한 비중
 - 2010~2020년까지 우리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특히 2023년에 들어 급감하는 모습

- 2023년 1~7월 현재 대 미국 수출 비중은 18.0%로 대 중국 비중에 근접함

<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대 중국수출/총수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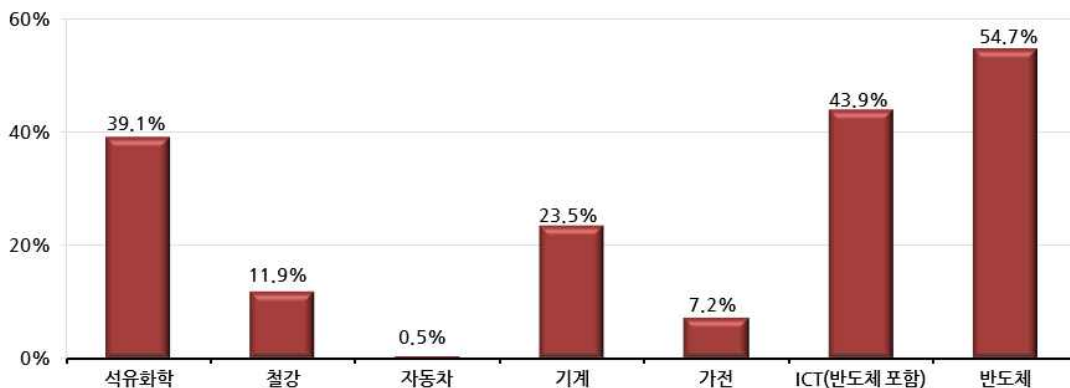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2023년은 1~7월 누계 기준.

- 그러나, 우리 주력 산업인 ICT 및 반도체 산업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 시장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 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 2022년 기준 주요 수출 산업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에서 자동차(0.5%), 가전(7.2%), 철강(1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기계(23.5%), 석유화학(39.1%) 등은 여전히 중국이 중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우리 ICT 수출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43.9%이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54.7%에 달함

<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대 중국 수출의존도 (2022년 기준, 홍콩 포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유화(MTI 21), 철강(MTI 61), 자동차(MTI 741), 기계(MTI 71~73), 가전(MTI 82)이며, ICT 및 반도체는 산업부/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자료 기준.

3.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① 분석 방법

- (분석의 전제)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과 원/달러 환율 수준이 연간 지속되고, 자료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023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 2023년 1~7월 누계 대 중국 수출 감소율이 연간 지속됨을 가정
 - 관세청 기준 2023년 1~7월 누계 수출증가율은 $\Delta 25.9\%$ 임
 - 2023년 1.1~8.21까지의 일평균 환율 수준이 연간 지속됨을 가정
 - 2023년 1.1~8.21 일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6.1원임
 - 2023년 수출 디플레이터는 2019~2022년의 수출 디플레이터 증가율의 평균을 가정
 - 2019~2022년의 수출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연평균 7.3%임
 - 2023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9년 산업연관표 상의 값으로 가정
 - 2019년 산업연관표의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임
- (이용 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국민계정, 환율 등의 통계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 등을 활용
- (분석 방법) 2023년 대 중국 수출 감소분을 추정하고 그 수출 감소분이 2023년 실질 GDP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 계산
 - 2022년 대 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를 확인하고 2023년 대 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감소 규모를 2023년 1~7월 누계 대 중국 수출 감소율을 이용하여 계산
 -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대 중국 수출 감소분을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해서 계산함

- 국제수지표 상 상품 및 서비스 수출과 국민계정 상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정 상의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제수지표상 대 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감소분을 추정함에 있어, 감소율을 최근 대 중국 (상품)수출증가율을 이용하였으나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추정의 정확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2023년 중 대 중국 수출감소분을 추정하여 원화로 환산한 이후 부가가치감소분을 계산하고 추정 수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GDP 감소분을 계산
- 2023년 연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증가율을 $\Delta 25.9\%$ 로 가정할 때, 2023년 대 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감소 규모는 369.2억 달러임
 - 2023년 원/달러 환율 수준을 1,296.1원으로 가정할 때, 2023년 원화 기준 대 중국 수출 감소액은 47.9조 원임
 - 2023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0.647로 가정할 때, 2023년 대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31.0조 원임
 - 2023년 수출 디플레이터증가율을 전년대비 7.3%로 가정(약 127.2p)하면, 2023년 대 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실질 GDP 감소 규모는 24.3조 원이며, 이는 2022년 실질 GDP 규모인 1,968.8조 원 대비 1.2%의 비중임

< 2023년 중 대 중국 수출 감소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추정 >

구 분	추 정 값	비 고
명목 2022년 대중국 총수출	1,425.6억 달러	—
상품수출	1,232.2억 달러	—
서비스수출	193.4억 달러	—
명목 2023년 대중국 수출감소 (달러기준)	369.2억 달러	2023년 1~7월 누적 대중국 수출감소율 적용
명목 2023년 대중국 수출감소 (원화 기준)	47.9조 원	2023년 1월 1일 ~8월 21일 환율 평균치 적용
명목 2023년 대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액	31.0조 원	2019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적용
실질 2023년 대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액	24.3조 원	최근 3년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률 평균치 적용
2023년 대중국 수출감소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1.2%p	2022년 실질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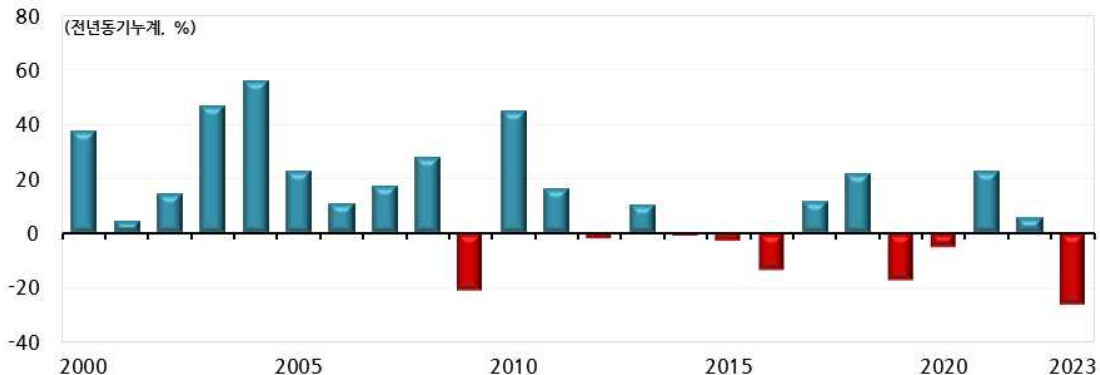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②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

-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 2023년 대 중국 수출증가율이 $\Delta 25.9\%$ 일 경우, 대 중국 수출 감소 요인에 따른 실질 GDP 감소 규모는 24.3조 원임
 - 2023년 중 추정된 실질 대 중국 수출 감소 규모는 2022년 실질 GDP 규모인 1,968.8조 원 대비 1.2%의 비중을 차지함
 - 이는 2023년 소비, 투자, 중국 이외의 수출 등의 다른 부문들이 2022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대 중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만 2023년 중 1.2%p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이 발생함을 의미함

-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23년 1~7월 대 중국 수출 누계치는 700.8억 달러로 전년동기인 2022년 1~7월의 실적 946.0억 달러 대비 245.2억 달러가 감소하면서 7월 기준 누적 기준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Delta 25.9\%$ 를 기록함
 - 2023년 1~7월 총수출 규모가 3,574.8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4,107.5억 달러보다 532.7억 달러가 감소하였는데, 이 중 대 중국 수출 감소 기여분은 46%임
 - 한편 2023년 1~7월 대 중국 수출증가율 $\Delta 25.9\%$ 의 감소폭은 한국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역 관계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임

< 한국의 1~7월 누계 기준 대 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첫째,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가 양호한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인도 등 거대 신흥국과 자원 수출국 등에 대해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통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요구됨
- 나아가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증 저금리 신용 공여,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문화 산업의 선진화를 본격화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여전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 산업들의 주력 제품이 범용 중간재에서 중국 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신기술·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그동안 중간재 중심의 대 중국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의 직접적인 중국 소비시장 타겟팅 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셋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 재정정책의 한계로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나, 다양한 미시적 소비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여 내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한편, 대내외 전면적 관광 시장 정상화에 대응하여 내국인의 관광 수요가 해외로 향하지 않고, 국내 여행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여행지의 인프라 및 관광 상품 정비 및 개발, 여행 경비 할인 및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 등 우리나라 관광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HRI**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